

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류리뷰 클리본 세리토스 콤파지 다우니 놀릭

LIFETIME WARRANTY! 최대 사업/최고 서비스/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문방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친한 친구는?]

기발고사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답을 맞춰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다며 두말 거리고 있었다.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우정이 돈독하여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사자여로 뒤리고 하는가?”

아이들은 ‘박역지구’ 나 ‘관포지교’ ‘죽마고우’ 등등의 답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석 자리의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한문 선생님은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큰 소리로 웃고 받았다. 철수는 선생의 답을 이렇게 적었다.

‘부담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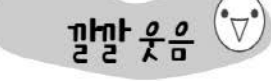
[거짓말]

어린 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다. 고된 끝에 아들을 불러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었다.

“거짓말을 하면 새빨간 눈에 붉어 달린 사람이 밤에 와서 잡아간다. 그리고는 불이 활활 타는 공짜기에 가둬 힘든 일일 사지키. 그때도 거짓말을 할 거야?”

아들이 되물었다.

그럼 오늘 밤에 새빨간 눈에 붉어 달린 사람이 엄마 찾아 오는 거야?”



[똥똥한 거]

아이지가가 흥중하고 배가 볼룩한 게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바퀴 지나거나 아줌마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 개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그런데 새끼는 언제 뜬 냐요?”

아이지가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기요……애는 수줍네요……”

[누구 초상화?]

한 여자가 회사를 찾아 남자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화가는 신혈을 기울여 여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리고 여자는 그 초상화가 맘에 속 들었다.

여자가 여자를 하기 위해 여자에게 갔더니 여자 가게 직원은 “네다한 미인이네요!”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음이 흐뭇해진 여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여자에게 직원이 물었다.

“그런데 이 여자랑은 어떤 사이세요?”

[할아버지는 독서광]

어제 할아버지가 ‘자매에 걸리지 않는 발’이라는 책의 책을 사셨었다.

그리고,



오늘 또 사 오셨다.

[할마·할매 탈출 작전]

한국에서는 할매가 부부가 증가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를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은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컫어 할마, 할매라고 한다. 할머니와 언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조향한 신조어이다.

그런데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육아를 자청하고 나서서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부탁으로 마지막 해 손주 육아를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손주 육아에서 해방되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

▶ “어휴, 내 새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 김치도 한번 씹 먹어볼까? 참, 김치는 예뻐에게는 텅고 짜지!” 하면서 김치를 입으로 푹푹 씹 뒤 손으로 찢어서 손자에게 먹인다.

▶ 음식은 먹은 손주의 양가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이런, 얼굴에 음식이 묻었네. 밥이 거뒀어올 게!’ 하면서 흥우로 입을 닦아준다. 흥우가 멀리 있으면 가까운 데 있는 냐래로 닦아준다.

▶ “밥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소화가 잘래!” 하면서 밥을 양에 넣어 씹었다가 먹여준다.

▶ 초기교육 삼아 고스름을 가르친다. 손주를 가르칠 때는 할마, 할매의 고강인 경성도나 친라도, 흥청도 사 투리로 차지게 말한다.

▶ 교육열에 불타 손주에게 한두 마디라도 영어를 가르치고 할 때는 빠디, 뽀스, 뽀스, 테레비 등 토속적인 발음을 가르친다.

주택 상가 리모델링 하우스 에디션 페인트

- 부엌, 화장실, 마루
- 창문, 덱, 페티오
- 페인트 (In/Out)
- 플러싱, 전기
- 루핑, 타일
- 우드 펜스

119 Construction Lic #1058993
(714) 525-5600 119 S. Gilbert St. Fullerton, CA 92833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REALTOR **데이빗 전**

(714)309-2355